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 개발 및 양호도 검증*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bility
Test for Young Children*

박형신(Hyoung-Shin Park)¹⁾

김영옥(Young-Ok Kim)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est of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and their ability to represent the elements of traditional Korean music. The test was reviewed by professional groups and modified by preliminary testing. In its final form,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bility Test(KTMAT) for 4- to 6-year-old children consists of 43 items covering understanding and ability to represent *Changdan*(*Changdanhjung*, *Bak*, *Bbareugi* and *Semyeorim*) and *Garak* (*Eumjeong* and *Sikimshae*). Item analysis,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KTMAT is an evaluation tool that can be used as basic material for developing children's musical ability, and it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showing direction for children's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Key Words : 유아국악능력(children's Korean traditional music ability), 국악능력(Korean traditional music ability), 국악능력 검사(Korean traditional music ability test).

I. 서 론

음악적 능력(musical ability)이란 어떤 사람이 음악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Boyle &

Radocy, 1987; Boyle, 1992)을 나타내는 용어로 서 흔히 음악적성(music aptitude), 음악적 재능(music talent), 음악성(musicality)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차

* 본 논문은 2006학년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연구인력장려금에 의하여 수행되었음(KRF-2005-B00057).

¹⁾ 전남대학교 강사

²⁾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ng-Ok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ngbongro 333, Bukgu, Gwangju 500-757, Korea

E-mail : yokim@chonnam.ac.kr

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음악적 행동과 그것이 행해지는 일체의 조건을 전제로 하는 선천적 자질과 음악적 경험, 음악적 성취 등을 복합적인 요소로 내포하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음악적 능력에 관한 연구는 음악심리학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조효임 · 최은식 · 정진원, 1996). 이는 음악적 능력을 변별해 내고 그것을 근거로 한 개인이 어느 정도의 음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을 통하여 앞으로 얼마나 성공적인 음악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견하는 것이 음악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인간의 음악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음악적 잠재력을 탐구하려는 시도는 서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영희, 1982; 신인숙, 1996; 이숙희, 1995; 임성미 · 황해익, 2004; 한국가이던스, 1994; 현경실, 1993a, 1993b, 1994, 1998, 2004, 2005; Bentley, 1966; Gordon, 1965, 1979, 1982, 1989; Lundin, 1967; Mainwaring, 1931; Revész, 1925; Seashore, 1919; Wing, 1952, 1960). 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심리학자 및 음악교육 학자들은 음악적 능력의 본질을 연구하고 검사의 방법들을 개발하여왔다. 이 중 Gordon(1979)은 특별히 5~8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기초 음악 오디에이션의 검사(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 PMMA)를 개발하여 음감과 리듬감을 그 검사내용에 포함시켰다. 국내에서도 한국가이던스(1994)에서 유아음악적성검사(Infant Musical Talent Test)가 개발된 바 있으나 장기간의 실험과 연구를 근거로한 Gordon의 기초 음악 오디에이션의 검사(PMMA)가 안정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는 그동안 변안 · 수정되어 유아의 음악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국내 다수의 연구(강은덕, 2001; 김명희, 2001; 김현영, 2001; 백지혜, 2001; 송연아, 2002; 신인숙, 1996; 안이화, 2003; 이숙희, 1993; 허순희, 1996)뿐만 아니라 국악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김시아, 1997; 윤형윤, 1999; 이주선, 2002; 정애경, 2003; 정애경 · 이윤경, 2004)에서도 사용되어 왔다.

Gordon(1988)은 자신이 개발한 검사도구에 관하여 인종과 문화적 배경에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Gordon의 검사가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몇몇 연구(김윤희, 1997; 현경실, 1993a, 1993b; 현경실 · 석문주, 1995, 1996)들은 이러한 Gordon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현경실(1993a)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연구에서 음감과 리듬감을 검사하는 Gordon(1965)의 음악적성 프로파일(The Music Aptitude Profile)점수와 한국음악¹⁾ 실기점수와 의 예언적 타당도계수를 산출하여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의 음감 및 리듬감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의 음감과 리듬감은 일치하지 않으며 한국음악을 잘 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서양음악에 대한 잠재력은 서로 다름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국악과 서양음악 간 음악적 특질상의 차이를 예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악은 크게 장단과 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으

1) 현경실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이루어진 자신의 연구에서 '한국음악'이라는 용어를 '국악'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1993년 이루어진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의 음악성의 비교 연구』에서의 '한국음악'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모든 갈래를 포함하며, 서양음악과 대칭되는 용어인 '국악(Korean Traditional Music)'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볼 수 있다.

며(백일형, 1997; 이동남, 1993) 이는 서양음악의 리듬과 멜로디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국악의 장단과 가락은 서양음악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국악만의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음악은 형성되어오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어가며 전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악은 서양음악과는 다른 우리민족의 정서와 연주자의 감각에 의해 그 짜임새와 쓰임새를 바꾸어 온 것이다(김동원, 1998). 또한 국악은 화성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서양음악과 다르지만, 화음을 대신해서 풍부한 장단의 변화와 독특한 시김새²⁾가 그 구실을 담당하는 등 국악의 구성체제와 음악적 정서는 서양음악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편, 임성미·황해익(2004)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음악능력 평가방법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서양의 표준화된 최초의 검사도구인 Seashore (1919)의 음악재능검사(The Seashore Measures Musical Talents)에서부터 Gordon의 기초 음악 오디에이션의 검사(PMMA), 그리고 한국가이던스의 음악적성검사도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청음위주의 검사방법에 대한 지적으로서 다양한 음악적 개념과 음악영역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검사대상의 연령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특별히 유아를 위한 검사도구에서 더욱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임성미·황해익(2004)은 기존의 청음을 중심으로한 음악능력평가의 대안적 방법으로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를 제안하였다.

이는 수행평가가 검사대상 스스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므로 보다 다면적인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국음악적성검사(Korean Music Aptitude Test)를 개발한 현경실(2004, 2005)은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음악능력 검사에서 동작요소를 포함시킴으로써 검사의 방법을 차별화하였는데 이는 유아기의 발달적 특수성을 고려한 검사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국악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국악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현장 연구들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국악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기존의 연구(김시아, 1997; 윤형운, 1999; 이주선, 2002; 정애경, 2003)들은 아직까지 국악활동에 서양음악적 접근을 시도하거나 그 효과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도 서양음악의 구성요소에 근거를 두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악의 음악적 요소를 규명하고(김영연·박형신, 2003; 박형신·김영연, 2004) 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검사도구를 활용하려는 노력들(박형신·김영연, 2004; 박형신·신은수, 2002; 이순례, 2003; 최선덕, 2005; 황인주, 2000)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연구의 결과에서 유아가 서양음악과 대비되는 국악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가능하였음을 밝혀낸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활용된 검사도구는 국악의 전반적인 음악적 요소(장단과 가락)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유아의 국악능력에 대한 발달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광범위한 실험의 축적과 타당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사실상 유아의 국악능력과 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도구는 개발되어있지 못하며 관련연구마저 전무한

2) 국악에서 '시김새'란 가락을 이루는 골격음의 앞이나 뒤에서 그 음을 꾸며주는 임무를 띤 장식음 또는 음길이가 짧은 잔가락을 뜻한다(서한범, 1998).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락을 꾸미는 장식음이라는 개념이 통념화 되어 있다(이보형, 1999).

실정이다.

유아를 위한 국악능력 검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요인은 검사의 내용인 국악이며 다른 요인은 검사의 대상인 유아이다. 바꾸어 말하면, 유아를 위한 국악능력 검사도구는 국악의 본질과 유아의 발달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우리민족 고유의 정서와 국악적 특성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표현을 발달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검사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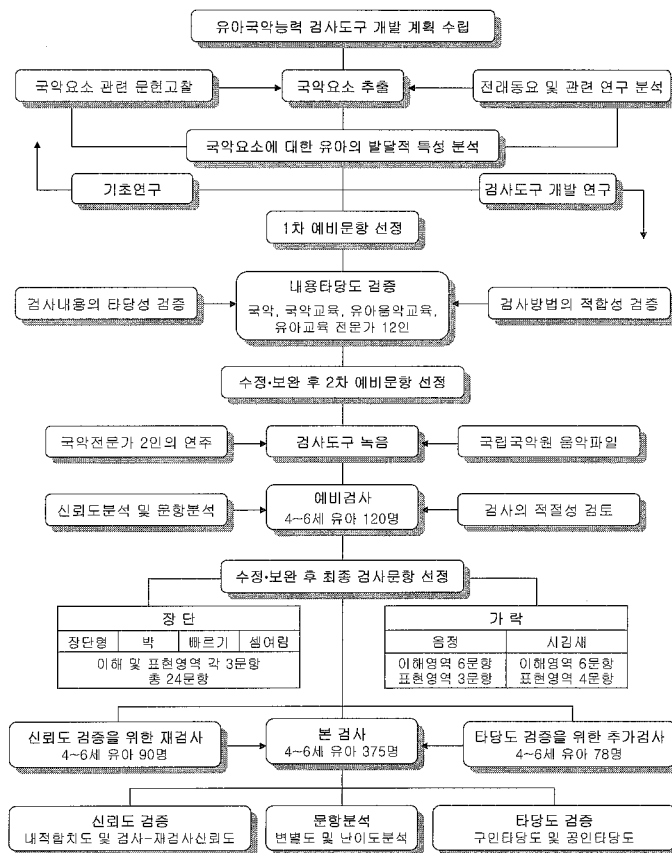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청음변별력에 의존하는 검사방법에서 벗어나 평가방법상 보다 유아에게 적합하고 국악요소 전반에 대한 이해

와 표현능력을 포함하는 국악능력 검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연구내용은 검사도구의 구성내용과 개발의 원칙을 정립하여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문항분석 및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종적인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검사도구의 개발에 앞서 연구자는 유아국



〈그림 1〉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의 개발 및 양호도 검증 절차

〈표 1〉 검사도구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정 의	
장단형	악기나 소리의 가락 속에 내재한 장단의 형태(꼴)	
장단	박(拍)	하나의 호흡구간이며 소리의 길고 짧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최소단위
	빠르기	박(拍)의 시간적 값어치가 길고 짧음에 의해 결정되는 박(拍)의 느리고 빠름
	셈여림	박(拍)을 이루는 특정 소박(小拍)에 기를 응집시켜 특히 강조하는 것
음 정	두 음 사이의 높이 차이	
가락	가락의 자연스러운 연결이나 유연한 흐름을 위하여 특정 음에 부여되는 표현기법 시김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성(搖聲) : 농현(弄絃)과 같은 의미의 떠는 소리 · 퇴성(退聲) : 고음에서 저음으로 흘러내리거나 꺾어내는 소리 · 추성(推聲) : 낮은 음에서 밀어 올려 높은 음을 내는 소리 · 전성(轉聲) : 굴러내는 소리 	

악능력 검사도구의 구성요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악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서양음악과 대비되는 국악 고유의 음악적 요소를 추출하고, 주가창자인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전래동요 및 관련 선행연구에 나타난 국악요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검사도구 개발의 원칙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만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국악요소에 기초한 국악활동을 구안 및 적용하여 국악요소에 대한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박형신 · 김영옥 · 김영연, 2006).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검사도구의 구성요소와 개발의 원칙을 정립하고 1차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내용타당도 검증과 예비검사를 거쳐 최종검사문항을 확정하고 만 4~6세 유아 총 375명을 대상으로 검사도구의 문항변별도와 난이도 및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양호도를 검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절차를 도표화하여 제시하면 위의 <그림 1>과 같다.

2. 문항구성

1) 검사도구의 구성요소 및 개발원칙

검사도구의 개발에 앞서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박형신 외, 2006)를 통해 추출한 국악요소는 국악의 2대 요소인 장단과 가락이며 장단과 가락의 하위요소인 장단형, 박(拍), 빠르기와 셈여림 및 음정과 시김새를 검사도구의 구성요소로 선정하였다. 각 구성요소의 정의를 간략히 제시하면 위의 <표 1>과 같다.

관련 선행연구(박형신 외, 2006; 이순례, 2003; 현경실, 2004)를 토대로 수립한 검사도구 개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는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고 다면적이며 심층적인 검사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악요소에 대한 유아의 능력을 이해와 표현영역으로 나누어 제작한다.

둘째,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는 검사의 대상을 만 4~6세의 유아로 한다. 국악요소에 대한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아는 만 4세가 되면 자신의 목소리를 통제하여 단순한 음정의 노래를 정확하게 부를 수 있게 되고 음높이도 모방해 낼 수 있으며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를 수 있게 된다. 또한 장단 및 악곡에서 느껴지는 규칙적인 박(拍)을 표현하기 시작하며 빠르기와 쉼여림 및 악곡의 표현적 특성에 대한 느낌을 악기로 표현하거나 신체로 조절하여 표현하는데 안정감을 갖게 되므로 만 4세 이상의 유아는 국악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기초능력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검사의 대상을 이와 같이 상정한다.

셋째, 검사의 표현양식 중 악기 다루기 및 가창의 범위를 구체적인 국악학습과는 별개로 수행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한정함으로써 선행학습에 대한 영향력에만 비중을 두지 않고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이 반영되도록 한다.

넷째,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에서 사용되는 장단 및 가락의 예는 전문 국악인의 연주와 가창에 의한 실음으로 구성하며 전래동요와 민요, 기악곡의 일부에서 추출하거나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창작한 것을 사용한다.

다섯째,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의 일부문항은 검사에 앞서 목적이 되는 특정 하위요소의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한다.

여섯째, 유아국악능력 검사는 미리 녹음된 검사내용을 통하여 실시하며 유아의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소요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일곱째, 유아국악능력 검사는 표현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검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피검사자간의 상호 영향력을 배제하며, 검사의 결과는 검사자에 의해 기록되도록 한다.

여덟째, 각 검사의 문항에는 검사에 대한 안내와 지시문을 수록하여 유아들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며 검사자간의 신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1차 예비문항

1차 예비문항은 장단의 하위요소에 대한 이해와 표현영역 각 3문항, 총 24문항과 가락의 하위요소인 음정에 대한 이해영역 6문항과 표현영역 3문항, 시김새(요성, 퇴성, 추성, 전성)에 대한 이해와 표현영역에 각 3문항, 총 33문항으로 모든 검사문항을 5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2차 예비문항

1차 예비문항은 전문가집단에 의해 타당성과 검사방법의 적절성이 검토되었다. 내용타당도 검증의 결과는 크게 검사의 내용, 검사의 방법 및 연령적 적합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검증결과를 토대로 1차 예비문항을 수정·보완하여 2차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수정된 2차 예비문항 중 유아에게 제시되는 장단 및 가락의 예는 검사에 적절한 형태로 녹음 및 편집 작업을 거쳐 CD에 수록하였다.

4) 예비검사

예비검사는 S시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기관을 임의표집하여 이들 기관의 만 4~6세 유아 총 120명을 검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비검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구성요소에 따라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여 내적합치도를 살펴보았으며 세부문항의 변별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검사의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하여 시김새의 세부문항을 종합한 내적합치도와 각 문항에 대한 난이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예비문항의 구성요소별 내적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전체문항과 각 하위요소의 Cronbach α 값은 .73~.92로 나타났으며 상·하위 25% 두 집단간의 평균차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p < .001$)

〈표 2〉 연구절차에 따른 검사문항의 수정·보완사항

절차		수정·보완 사항
1차 예비문항	문항수 (57)	장단 : 이해영역(4X3), 표현영역(4X3) 가락 : 음정 : 이해영역(6), 표현영역(3) / 시김새 : 이해영역(4X3), 표현영역(4X3)
	검사방법	이해영역 : 한 쌍의 장단 또는 가락의 예를 듣고 같고 다름 구별하기 표현영역 : 장단 또는 가락의 예를 듣고 해당 구성요소의 특징을 신체, 악기, 가창으로 표현하기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검사내용	개인의 연주성향에 따라 빠르기가 변화될 수 있는 제시곡과 구성요소가 중첩되어 혼동을 줄 수 있는 제시곡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시김새 중 요성의 떨리는 음폭에 따라 검사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제안됨
	검사방법	시김새의 표현을 유도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및 음정에 관한 표현 검사에서 가창검사를 단일음절로 실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제안됨



2차 예비문항	문항수 (57)	장단 : 이해영역(4X3), 표현영역(4X3) 가락 : 음정 : 이해영역(6), 표현영역(3) / 시김새 : 이해영역(4X3), 표현영역(4X3)
	검사내용	제시곡의 일부 수정
	검사방법	표현을 돕기 위한 도구 첨가, 단일음절로 실행하는 가창검사 포함



예비검사 결과	검사내용	제시곡의 빠르기가 느린 문항은 유아의 표현이 잘 나타나지 않음 시김새 문항의 표현영역에서 각 시김새간의 구별과 시김새와 평성간의 구별에 동일한 점수가 부여될 우려가 있음 검사의 소요시간이 30분을 초과하여 문항의 축소가 요구함
	검사방법	시김새 문항의 표현영역에서 각 시김새간의 구별과 시김새와 평성간의 구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배점기준	검사의 표현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의 기준이 요구됨



최종 검사문항	문항수 (43)	장단 : 이해영역(4X3), 표현영역(4X3) 가락 : 음정 : 이해영역(6), 표현영역(3) / 시김새 : 이해영역(6), 표현영역(4)
	검사내용	가락의 하위요소 시김새 중 요성, 퇴성, 추성과 전성에 대한 이해 및 표현영역 검사문항을 통합하여 수정·보완함
	검사방법	가락의 하위요소 중 시김새의 검사문항을 통합하였으므로 이해 및 표현영역에 대한 검사의 예시에서 각각 요성, 퇴성, 추성, 전성에 대한 특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예를 확대함
	배점기준	표현의 정확성과 일관성의 차원에서 표현영역 문항에 대한 검사기준 범주화

2차 예비문항은 각 구성요소에 대한 유아의 국악 능력을 잘 변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예비검사를 통하여 검사의 적절성을 검

토한 결과 검사의 소요시간이 30분을 초과하였 으며 시김새의 표현영역 문항의 검사방법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므로 시김새의

전체 24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분석과 난이도 분석을 실시하여 17문항을 선별하였다. 또 이 중 표현영역의 대조문항인 평성문항을 삭제한 후 구성요소의 비율을 고려하여 총 10문항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검사의 표현영역 문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표현영역 문항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표현의 정확성과 일관성의 차원에서 범주화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보완된 총 43문항의 최종검사문항은 미리 녹음된 음악파일의 편집을 통하여 검사에 적합한 형태로 CD에 저장하였다.

3. 검사도구의 양호도 검증

1) 연구대상

유아국악능력 검사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본 검사에서는 A, S시에 위치한 유치

원과 어린이집 6곳을 무선표집하여 각 기관의 만 4~6세 유아 총 375명을 검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검사를 실시한 유아들 중 78명의 유아를 선별하여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국악음악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유아 중 연령별 각 30명, 총 90명의 유아에게는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대상 유아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2) 연구도구

(1)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는 연구자가 만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국악요소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국악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검사도구이다. 문항의 구성은 국악요소인 장단과 가락에 대한 이해 및 표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문항은 장단의 하위요소 장단형, 박(拍), 빠르기, 셈여림의 이해영역 및 표현영역에 각 3문항, 총 24문항과 가락의 하위요소 중 음정의 이해영역 6문항, 표현영역 3문항과 시김새의

<표 3> 검사대상 유아의 분포

대상연령	유아 수			평균	표준편차	
	남	여	계			
본 검사 (2006년 1월 기준)	4세	58	67	125	53.88(4년5개월)	3.691
	5세	65	60	125	65.15(5년4개월)	3.637
	6세	61	64	125	76.45(6년4개월)	2.319
	전체	375				
타당도 검증을 위한 추가검사 (2006년 1월 기준)	4세	12	13	25	53.52(4년5개월)	3.595
	5세	14	14	28	66.50(5년5개월)	3.615
	6세	11	14	25	76.04(6년4개월)	2.908
	전체	78				
신뢰도 검증을 위한 재검사 (2006년 1월 기준)	4세	15	15	30	53.73(4년5개월)	3.741
	5세	15	15	30	65.50(5년5개월)	3.749
	6세	15	15	30	76.43(6년4개월)	2.885
	전체	90				

이해영역 6문항, 표현영역 4문항으로 총 4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검사방법은 이해영역의 경우, 약 4~6초의 같거나 다른 두 장단(가락)의 예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연속으로 제시되어 이들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도록 한다. 표현영역에 경우, 듣고 따라 표현하는 문항은 약 4~6초의 장단(가락)의 예가 제시되고, 제시곡에 맞춰 표현하는 문항은 약 10~15초의 장단 또는 가락이 제공되는데 각 제시곡에 포함된 국악요소의 특징을 신체표현, 악기 다루기, 가창 등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해 검사대상에 따라 검사의 소요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총 30분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도록 구성되었다.

점수배점은 이해영역의 경우, 장단 또는 가락의 같고 다름에 대한 구별 여부(興否)에 따라 0~1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표현영역의 경우, 표현의 정확성과 일관성의 정도에 따라 배점에 차등을 두어 0~2점의 점수가 부여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 점수의 범위는 0~62점의 분포를 갖는다.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의 상세한 구성내용은

〈표 4〉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구성요소		검 사 내 용			
국악 요소	하위 요소	영역	세부내용	문항 수	점수
장단형	이해	①②③ 장단형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3	0~1×3
	표현	①②③ 장단형을 국악기나 손뼉으로 쳐보기		3	0~2×3
박(拍)	이해	①②③ 박(3소박, 2소박)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3	0~1×3
	표현	① 굿거리(3소박4박자계) 장구장단의 박에 맞춰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기		3	0~2×3
		② 자진모리(3소박4박자계)의 박에 맞춰 구음 표현하기			
	③ 「강강술래」 중 「손치기」(2소박4박자계)의 박에 맞춰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기				
장단	이해	① 빠르기(중모리 ♩ ≒ 60, ♩ ≒ 90)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3	0~1×3
		② 빠르기(세마치 ♩ ≒ 60, ♩ ≒ 60)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③ 빠르기(휘모리 ♩ ≒ 100, ♩ ≒ 120)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빠르기	표현	① 현악영산회상 「새령산 ♩ ≒ 40」의 빠르기에 맞춰 신체표현하기		3	0~2×3
		② 휘모리(♩ ≒ 120) 장구장단의 빠르기에 맞춰 걷기			
		③ 「천지새끼」 [전반부(♩ ≒ 100)과 후반부(♩ ≒ 76)]의 빠르기에 맞춰 신체표현하기			
셈여림	이해	①②③ 셈여림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3	0~1×1
	표현	① 「콩 받아라」의 큰소리 찾아 따라 불러보기		1	0~2×3
②③ 셈여림을 구별하여 국악기나 손뼉으로 쳐보기			2		

<표 4> 계속

구성요소			검 사 내 용		
국악 요소	하위 요소	영역	세부내용	문항 수	점수
음정		이해	①음정(완전1도)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6	0~1×6
			②음정(완전4도/)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③음정(완전4도/+장2도\)\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④음정(장2도/+장2도\,+장2도\)\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⑤음정(완전4도/+단3도/)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⑥음정(단3도/+단3도\,+장2도\,+단3도\)\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가락		표현	①음정(완전4도/)에 맞게 노래 부르기	3	0~2×3
			②음정(완전4도/+장2도\)\에 맞게 노래 부르기		
			③음정(단2도/+장2도/)에 맞게 노래 부르기		
시김새		이해	①요성(굵게 떠는 요성)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6	0~1×6
			②요성(잘게 떠는 요성)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③퇴성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④퇴성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표현	⑤추성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4	0~2×4
			⑥전성의 같고 다름을 구별하기		
			①시김새(요성)를 구별하여 깃발이나 신체로 표현하기		
			②시김새(전성)를 구별하여 깃발이나 신체로 표현하기		
			③시김새(퇴성)를 구별하여 깃발이나 신체로 표현하기		
			④시김새(추성)를 구별하여 깃발이나 신체로 표현하기		
전 체				43	0~62

<표 4>와 같다.

(2) 국악음악성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검사도구로 황인주(2000)에 의해 제작되고 이순례(2003)에 의해 수정된 ‘국악음악성 검사’를 사

용하였다. ‘국악음악성 검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에서 제시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영역과 표현영역을 근거로 제작한 것으로 여기에는 이해영역에 음높이, 셈여림, 장단, 음색, 빠르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표현영역에 가창과 기악, 창작, 시김새, 감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

나 ‘국악음악성 검사’에는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검사도구의 구성요소인 장단[장단형, 박(拍), 빠르기(한배), 셈여림(勢)] 및 가락[음정, 시김새]과 관련된 문항을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검사에 앞서 검사를 진행할 검사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검사자 훈련을 위하여 연구자는 2005년 9월 9일부터 2006년 1월 9일까지 총 4개월 동안 유아교육과 4학년 재학생 6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국악이론 교육과 실기지도도를 실시하였으며 국악곡의 감상, 가창 및 유아국악활동의 실체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자 스스로 국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악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도록 하였다. 표현영역에 대한 검사자간 신뢰도는 장단과 이해영역에서 각각 .88과 .94로 나타났다.

본 검사는 연구자 1인과 검사자 훈련을 마친 보조연구자 6인에 의해서 2006년 1월 11일부터 2006년 1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검사자는 학급의 오전 활동시간 중 일부에 참여하여 유아들과 친숙해지기 위한 시간을 가진 후 교실과 떨어진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유아와 1 : 1로 면접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에 앞서 검사에 참여하는 모든 유아에게 검사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미리 제작된 CD자료를 이용하여 약 30분을 소요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의 결과는 미리 준비된 검사지에 검사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본 검사를 실시한 이후 2006년 2월 1일부터 3일까지 검사에 참여한 유아 중 78명을 선별하여 검사도구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한 재검사를

2006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재검사 대상은 본 검사를 완료한지 약 4주가 지난 유아 중 연령별 남녀 각 15명씩 총 90명을 선별하여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분항 및 구성요소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검사도구의 문항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α 값과 안정성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국악음악성 검사’와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상과 같은 자료처리는 SPSS version 12.0과 AMOS version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문항분석

1) 문항변별도

전체적인 평균은 다음 <표 5>와 같이 .56~1.29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장단의 경우, 이해영역은 .61~.73, 표현영역은 1.01~1.29의 평균을 나타냈고 가락의 경우는 이해영역이 .56~.69, 표현영역이 .75~1.26의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총점을 근거로 상·하위 25%에 해당하는 집단을 선별하여 평균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인 평균뿐만 아니라 장단과 가락 및 각 하위요소와 세부 문항에 대한 상·하위집단 간의 평균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므로($p < .001$) 검사도구의 문항은 유아의 국악능력을 잘 변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검사도구 세부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유아수 (375)

구성요소	영역	문항	평균(표준편차)					
장단	장단형	이해 1~ 3	.61(.489)	.64(.481)	.63(.484)			
		표현 4~ 6	1.11(.850)	1.01(.853)	1.09(.840)			
	박	이해 7~ 9	.68(.467)	.70(.458)	.68(.467)			
		표현 10~12	1.10(.744)	1.04(.764)	1.11(.759)			
	빠르기	이해 13~15	.73(.447)	.66(.474)	.70(.459)			
		표현 16~18	1.22(.794)	1.29(.758)	1.13(.791)			
셈여림	이해 19~21	.71(.456)	.70(.459)	.70(.461)				
	표현 22~24	1.03(.767)	1.07(.805)	1.08(.863)				
가락	음정	이해 25~30	.56(.497)	.59(.492)	.62(.486)	.61(.489)	.58(.494)	.60(.491)
		표현 31~33	.99(.781)	1.15(.751)	.75(.835)			
	시김새	이해 34~39	.69(.465)	.63(.482)	.66(.473)	.66(.475)	.64(.481)	.65(.479)
		표현 40~43	1.26(.720)	.90(.888)	.97(.830)	.97(.830)		

2) 문항난이도 적인 문항통과율은 25.3~72.5%의 분포를 나타냈
 검사도구의 난이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부분 다. 또한 구성요소별 문항통과율은 장단에 대한
 항에 대한 통과율을 백분율로 산출한 결과, 전체 이해영역의 경우 60.5~72.5%, 표현영역의 경

〈표 6〉 검사도구 세부문항의 연령별 통과율

단위 (%)

구성요소	영역	문항	검사내용	4세	5세	6세	전체
				n=125	n=125	n=125	n=375
장단형	이해	1	장단형(3소박4박자계) 구별	48.8	62.4	70.4	60.5
		2	장단형(3소박4박자계) 구별	45.6	67.2	79.2	64.0
		3	장단형(2소박4박자계) 구별	50.4	62.4	76.0	62.9
	표현	4	장단형(3소박4박자계) 표현	24.8	36.0	66.4	42.4
		5	장단형(3소박4박자계) 표현	23.2	33.6	52.8	36.5
		6	장단형(2소박4박자계) 표현	21.6	35.2	63.2	40.0
장단	이해	7	박(3소박, 2소박) 구별	54.4	72.8	76.8	68.0
		8	박(3소박, 3소박) 구별	52.0	74.4	84.0	70.1
		9	박(3소박, 2소박) 구별	54.4	70.4	79.2	68.0
	표현	10	긋거리(3소박4박자계) 표현	24.0	34.4	41.6	33.3
		11	자진모리(3소박4박자계) 표현	21.6	32.8	39.2	31.2
		12	휘모리(2소박4박자계) 표현	21.6	34.4	48.0	34.7

〈표 6〉 계속

구성요소	영역	문항	검사내용	4세	5세	6세	전체	
				n=125	n=125	n=125	n=375	
장단	이해	13	빠르기(중모리 ♩=60, ♩=90) 구별	57.6	76.0	84.0	72.5	
		14	빠르기(세마치 ♩=60, ♩=60) 구별	45.6	72.8	80.0	66.1	
		15	빠르기(휘모리 ♩=100, ♩=120) 구별	56.0	71.2	82.4	69.9	
	표현	16	빠르기(「세령산」 ♩=40) 표현	30.4	52.8	50.4	44.5	
		17	빠르기(휘모리 ♩=120) 표현	33.6	52.8	55.2	47.2	
		18	빠르기[「원지새끼」 전반부(♩=100)와 후반부(♩=76)] 표현	25.6	43.2	46.4	38.4	
	셈여림	이해	19	셈여림 구별	56.8	72.8	82.4	70.7
			20	셈여림 구별	52.8	75.2	81.6	69.9
			21	셈여림 구별	56.8	71.2	80.8	69.6
		표현	22	셈여림 표현	21.6	27.2	43.2	30.7
			23	셈여림 표현	23.2	37.6	47.2	36.0
			24	셈여림 표현	24.0	44.0	56.0	41.3
	음정	이해	25	음정(완전1도) 구별	44.0	60.0	64.0	56.0
			26	음정(완전4도↗) 구별	56.8	57.6	63.2	59.2
			27	음정(완전4도↗+장2도↘) 구별	55.2	59.2	72.0	62.1
			28	음정(장2도↗+장2도↘+장2도↘) 구별	52.8	57.6	71.2	60.5
			29	음정(완전4도↗+단3도↗) 구별	47.2	57.6	70.4	58.4
			30	음정(단3도↗+단3도↘+장2도↘+단3도↘) 구별	48.8	59.2	71.2	59.7
표현		31	음정(완전4도↗) 표현	22.4	28.8	38.4	29.9	
		32	음정(완전4도↗+장2도↘) 표현	24.8	35.2	49.6	36.5	
		33	음정(단2도↗+장2도↗) 표현	20.0	27.2	28.8	25.3	
가락	이해	34	요성(굵게 떠는 요성) 구별	58.4	69.6	77.6	68.5	
		35	요성(얇게 떠는 요성) 구별	48.0	67.2	75.2	63.5	
		36	퇴성 구별	54.4	68.0	76.8	66.4	
		37	퇴성 구별	56.8	65.6	75.2	65.9	
		38	추성 구별	56.0	63.2	72.8	64.0	
	표현	39	전성 구별	52.0	66.4	75.2	64.5	
		40	요성 표현	29.6	43.2	53.6	42.1	
		41	전성 표현	23.2	30.4	50.4	34.7	
		42	퇴성 표현	20.0	29.6	49.6	33.1	
		43	추성 표현	22.4	27.2	48.8	32.8	

우 30.7~47.2%의 통과율을 나타냈고 가락에 대한 이해영역의 경우 56.0~68.5%, 표현영역의 경우 25.3~42.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국악요소에 대한 이해 능력보다 이를 표현해 내는 표현능력이 좀더 미숙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각 문항의 통과율이 연령에 따라 증가함을 보였으므로 검사의 문항이 국악능력에 대한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잘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신뢰도 검증

1) 내적합치도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요소별 내적합치도를 산출한 결과, 전체문항의 Cronbach α 값이 .93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소 장단과 가락의 Cronbach α 값은 각각 .92와 .85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하위요소별 Cronbach α 값은 장단의 하위요소의 경우 .83~.88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가락의 하위요소의 경우 .82로 나타났으므로 검사도구의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검사-재검사 신뢰도

본 검사와 재검사를 통하여 양 검사간의 상관을 나타내는 안정성계수를 산출한 결과, 하위요소별로 .80~.94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는 .93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사와 재검사간의 높은 상관도를 나타내는 결과이므로 이러한 결

과를 통하여 검사도구가 안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타당도 검증

1) 구인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이론을 근거로 전체 검사문항 및 구성요소와 측정변수간의 관계를 미리 설정한 모형에 수집된 원자료의 공분산행렬을 적용한 후 최대우도법에 의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설정모형은 적합성을 검증받은 타당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요인계수와 기각비율을 확인하여 구성요소 및 각 세부문항에 대한 유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표준화된 요인계수는 .493~.945의 분포를 나타냈으며($p < .001$) 구성요소 및 세부문항의 기각비를 또한 1.96 이상의 결과를 나타냈으므로 본 검사도구의 구성요소 및 세부문항은 유아의 국악능력을 측정하는 타당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2) 공인타당도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검사도구의 전체점수와 '국악음악성 검사'의 종합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 = .85, p < .001$) 장단($r = .85, p < .001$)요소 역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본 검사도구의 가락요소는 음정과 시김새의 구분을 세분화한데 반하

<표 7>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chi^2(df)$	p	$\chi^2/df(Q값)$	TLI	CFI	RMSEA
적합기준			3이하	.90이상	.90이상	.08이하
적합도검증결과	1469.274(841)	.000	1.75	.909	.916	.045

〈표 8〉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와 ‘국악음악성 검사’의 상관관계

본 검사	국악음악성 검사	장단관련 문항	가락관련 문항	종합
장단		.85***	.32**	.83***
가락		.64***	.50***	.74***
전체		.81***	.42***	.85***

** $p < .01$ *** $p < .001$

여 ‘국악음악성 검사’의 가락관련 문항은 시김새의 요소를 세분화하지 않았고 음정에 있어서도 단순 높낮이의 구분하였으므로 두 검사도구의 가락요소는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r = .50, p < .001$) 이 역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므로 본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는 공인타당성을 갖춘 검사도구임이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존의 청음변별력에 의존하는 검사방법에서 벗어나 평가방법상 보다 유아에게 적합하고 국악요소 전반에 대한 이해와 표현능력을 포함하는 국악능력 검사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국악요소를 검사도구의 구성요소로 선정하고 국악요소에 대한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의 국악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양호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도구의 문항변별도 및 난이도 분석을 포함한 문항분석에서 각 구성요소 및 세부문항은 상·하위집단간의 평균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통과율을 통하여 살펴본 난이도분석의 결과 역시 전체적으로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적인 문항통과율이 이해영역에 비해 표현영역에서 대체적으로 낮은 분포를 나타냈는데 이는 유아의 음악에 대한 표현능력이 이해능력에 비해 좀 더 미숙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겠으며 표현영역에 대한 난이도를 고려하여 배점기준을 재설정한다면 보다 만족할만한 검사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검사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내적합치도에서는 전체문항의 신뢰도가 .93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요소 장단과 가락의 신뢰도가 각각 .92와 .85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하위요소별 신뢰도에서 장단의 하위요소는 .83~.88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가락의 하위요소는 각각 .82로 나타났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양 검사간의 상관을 나타내는 안정성계수가 .80~.94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는 .9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검사도구의 신뢰성을 인정하는 .50(강병서·김계수, 2005)이상의 수치이므로 본 검사도구가 신뢰성이 확보된 검사도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고, ‘국악음악성 검사’와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검사도구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요인모형의 적합도 수치가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순례(2003)의 ‘국악음악성 검사’와의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구성요소 장단과 가락 모두에서 두 검사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안정적인 검사도구이며 유아의 국악능력을 잘 변별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국악능력 관련검사가 전반적인 국악요소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으며 유아의 국악능력에 대한 발달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데 반하여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는 국악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국악능력을 파악함과 동시에 국악능력 안에서의 진보와 취약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의 국악능력을 파악하고 발달적 진전을 확인하는 것은 유아의 국악능력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더 나아가 현재까지 구체화 되지 못한 유아국악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이상의 유아가 국악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기초능력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의 적용대상을 만 4~6세로 한정하였으나 만 3세 유아의 경우, 장단과 가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표현이 가능하였으며, 만 7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국악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개발되어있지 못하므로 검사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보다 폭 넓은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능력 검사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가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악능력을 잘 변별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해영역에 비해 표현영역의 문항통과율이 다소 낮은 결과를 나타냈으므로 전체적인 문항통과율을 고려하여 문항의 난이도와 배점의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수

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유아국악능력 검사도구가 비록 국악요소인 장단과 가락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나 유아의 발달적 특성 및 검사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검사의 문항을 개발하였으므로 이후에 국악 안에서의 장단과 가락의 본질적인 운용체계에 초점을 둔 검사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규모의 무선표집에 의해 선정된 표본이 아니므로 이후에 보다 체계적인 표집절차를 거쳐 표준화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병서·김계수(2005).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 SPSS 아카데미.
- 강은덕(2001). 음악적 개념에 기초한 통합적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성과 행동·동작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원(1998). 한국전통장단의 구성원리. **한국전통연회의 이해와 실제 I**(pp.95-149). 서울 : 한국종합예술학교.
- 김명희(2001). 유아의 음악적성과 음악환경 조사연구 : Gordon의 PMMA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아(1997). 전래동요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음악적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연·박형신(2003). 유아의 장단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통합적 유아국악교육, **한국 유아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화의 토대. 2003 연차 학술대회**, 333-345.
- 김영희(1982). 유아의 기초적인 음악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1997). 서양음악 적성검사를 통한 한국음악적 성추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고든의 음악적

- 성검사를 이용하여. **음악교육연구**, 16, 329-360.
- 김현영(2001). Gordon의 음악학습이론에 근거한 음악 감상활동이 유아의 음감과 리듬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형신·김영연(2004). 예술영역간 통합적 국악활동이 유아의 장단개념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27, 65-89.
- 박형신·김영옥·김영연(2006). 국악요소의 이해 및 표현에 대한 유아의 발달적 특성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1(3), 47-75.
- 박형신·신은수(2002). 놀이중심 국악교육이 유아의 장단이해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3), 19-38.
- 백일형(1997). 장단과 관련된 학술용어. **한국음악연구**, 25(1), 31-53.
- 백지혜(2001). Gordon의 학습이론에 기초한 오디에이션 활동이 유아의 음악소질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연아(2002). 리듬악기를 이용한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인숙(1996). 음악적성과 성취도 검사를 위한 음악학습프로그램의 개발. **음악교육연구**, 15, 207-229.
- 안이화(2003). 음악환경과 청음능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형윤(1999). 가정과의 연계적 전래동요 활동이 유아의 음악적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남(1993). 국악교육의 정상화 방안 연구(III) : 장단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19, 57-79. 서울교육대학교.
- 이숙희(1993). 5세 유아의 음악청취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집**, 1, 276-295. 서울여자대학교.
- 이숙희(1995). 유아음악적성검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5(1), 175-204. 중앙대학교.
- 이순례(2003). 통합적 유아 국악음률활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선(2002). 전래동요, 창작동요 활동이 유아의 음악적성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미·황해익(2004). 유아음악능력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유아교육논집**, 13(1), 129-150.
- 정애경(2003). 유아 전통음악교육이 유아의 음악적 태도변화와 리듬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애경·이윤경(2004). 유아전통음악교육이 유아의 음악적 태도 변화와 리듬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5(3), 115-126.
- 조효임·최은식·정진원(1996). 한국 초등학교생의 음악적성에 관한 연구 : 고든의 중급 음악적성검사(IMMA)에 근거하여. **음악교육연구**, 15, 437-471.
- 최선덕(2005). 한국전통음악교육이 유아의 국악음악 성과 운동기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가이던스(1994). **유아음악적성검사**. 서울 : 한국가이던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 연구 : 초등학교 도덕, 실과, 음악, 미술교과를 중심으로**. 서울 : KICE.
- 허순희(1996).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놀이중심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경실(1993a).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의 음악성의 비교 연구. **국악교육**, 11(1), 9-20.
- 현경실(1993b). 한국 학생들에 대한 고급 오디에이션 능력검사(AMMA) 사용가능성 조사연구. **음악교육연구**, 12, 165-187.
- 현경실(1994). 음악소질 형성과 한국음악소질검사 제작을 위한 방안 연구. **국악교육**, 12(1), 33-55.
- 현경실(1998). 한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위한 한국음악적성검사의 타당도 연구. **음악교육연구**, 17, 15-44.
- 현경실(2004). **한국 음악적성 검사**. 서울 : 학지사.
- 현경실(2005).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음악적성 검사 개발 연구. **음악과 문화**, 12, 111-138.

- 현경실 · 석문주(1995). 교육대학 음악과 심화과정 학생들을 위한 음악적성검사 적용 가능성. **국악교육**, 13(1), 181-202.
- 현경실 · 석문주(1996). 음악적성검사 개발을 위한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과 Musical Aptitude Profile의 타당도 연구. **연세음악연구**, 4, 149-173. 연세대학교.
- 황인주(2000). 유아국악교육이 국악음악성과 국악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ntley, A. (1966). *Musical ability in children and its measurement*. London : Harrap.
- Boyle, J. D.(1992). Evaluation of music ability. In R. Colwell(Ed.), *The Handbook of Research in Music Teaching and Learning*(pp.247-265). New York : Schirmer Books.
- Boyle, J. D., & Radocy, R. E. (1987).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musical experiences*. New York : Schirmer Books.
- Gordon, E. E. (1965). *The musical aptitude profile*. Chicago : The Riverside Publications.
- Gordon, E. E. (1979).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Chicago : G. I. A. Publications, Inc.
- Gordon, E. E. (1982).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Chicago : G. I. A. Publications, Inc.
- Gordon, E. E. (1988). *Learning sequences in music : Skill, content, and patterns*. Chicago : G. I. A. Publications, Inc.
- Gordon, E. E. (1989). *The advanced measures of music audiation*. Chicago : G. I. A. Publications, Inc.
- Lundin, R. W. (1967). *An objective psychology of music*. New York : Ronald Press.
- Mainwaring, J. (1931). Tests of musial ability. *Educational Psychology*, 1, 313-321.
- Revész, G. (1925). *The psychology of a musical prodigy*. New York : Harcourt Brace & Company.
- Seashore, C. E. (1919). *The Seashore measure of music talents*. New York : Columbia Phonograph Company.
- Wing, H. D. (1952). Some applications of test results to education in music.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 161-170.
- Wing, H. D. (1960). *Manual for standardized tests of musical intelligence*. Windsor : National Foundation Educational Research Publications.

2006년 10월 30일 투고 : 2007년 1월 29일 채택